

#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더 촘촘하게 챙긴다

## 기반 시설 공정률 76%...8월 시범 운영·9월 개막 준비 바가지요금 근절·친절 등 손님맞이 범시민실천운동도

오는 9월 개최되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촘촘한 준비 작업이 진행된다.

12일 (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일부 언론과 유튜브 방송 등에서 제기된 우려와 지적사항에 대해 경허히 받아들이고 남은 기간 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더욱 세심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특히 박람회장 공사 지연과 관련해 7월 준공 목표를 달성하도록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하고, 주변 쓰레기 정비와 바가지요금 문제에 대해서도 종합대책을 세워 개막 전

까지 해소할 계획이다.

조직위에 따르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주행사장은 상하수도, 배수로 등 기초 공사, 보행로 설치 등 기반시설 공사 그리고 박람회 주행사장 시설물·전시관(랜드마크 1개, 전시관 8개) 공사로 현재,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기초 공사는 완료되었고, 기반 시설 공사는 공정률 76%로 6월까지 완료될 계획이다. 주행사장 시설물·전시관 중 랜드마크 크인 '주제섬' 공사는 공정률 42%로 7월에 완료될 계획이며, 주행사장 시설물 중 랜드마크를 제외한 8개 전시관은 영구시

설이 아닌 임시 시설물인 특수 강화텐트(TFS텐트)로 조성되며 6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모든 시설을 7월까지 준공하고, 8월 시범운영을 거쳐 9월 성공적인 개막이 이뤄지도록 제반 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행사장 주변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선, 지난 2월부터 페어구나 폐선박 440척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어항구역 등의 불법 적치물에 대해 행정조치 후 정비에 나섰고 있다. 또 도서지역 생활폐기물도 격주로 수거를 진행, 청결한 환경 조성에 온 힘을 쏟고 있다.

바가지요금 근절을 비롯한 관광객 수용 태세도 재정립하는 등 방문객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에 나섰고 있다. 섬박람회 범시민준비위원회를 비롯해 유관기관·단체와 함께 청결, 안전, 음식, 숙박, 교통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친절하고 청결한 섬박람회 손님맞이를 위한 대대적인 범시민 실천운동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관람객 교통 편의를 위해 임시주차장 12곳에 7400여면을 확보하고, 셔틀버스 9개 노선을 주중 30대·주말 최대 60대까지 운행하는 등 교통대책도 구체화하고 있다. 박람회 기간 주행사장과 섬지역 버스는 무료로 운행하고, 부행사장을 잇는 해상교통 6개 노선에는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에 나선다.

정현구 조직위원장 권한대행은 "섬박람회에 대한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에 겸허히 경청하고, 남은 기간 동안 행사장 조성부터 관람객 유치, 청결·안전 등 손님맞이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순천시는 11일부터 12일까지 형형색색 150만송이의 튤립이 만개한 네덜란드정원 일원에서 튤립을 주제로 한 봄 축제 '튤립 왔나 봄'을 개최했다.

사진제공=순천시청

## “순천만국가정원에서 150만송이 튤립 꽃물결 만끽”

### 네덜란드 정원 일원 11~12일 '튤립 왔나 봄' 개최 향수 만들기·플라워 타투 등 참여형 콘텐츠 기획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국가정원이 4월, 가장 찬란한 순간을 맞았다.

순천시는 11일부터 12일까지 형형색색 150만송이의 튤립이 만개한 네덜란드정원 일원에서 튤립을 주제로 한 봄 축제 '튤립 왔나 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꽃 관람을 넘어, 정원을 직접 체험하고 기록하는 참여형 콘텐츠로 기획됐다.

우선 100명이 참여하는 '튤립 드로잉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참가자들은 만개한 튤립을 배경으로 태블릿을 활용해 자신만의 봄날을 그려내며, 완성된 작품은 디지털 아카이빙을 통해 기록됐다. 꽃을 보는 경험에서 나아가, 봄의 순간을 직접 남기는 새로운 정원 체험이 됐다.

튤립을 테마로 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튤립 불펜 꾸미기, 튤립 풍선 만들기, 나만의 가든 도어벨 제작,

튤립 향기 향수 만들기, 플라워 타투 체험 등 오감으로 즐기는 콘텐츠를 통해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네덜란드정원의 상징인 풍차 전망대를 특별 개방했다. 관람객들은 지상에서 바라보는 풍경을 넘어,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튤립 장관을 경험하며 색다른 시선의 정원을 만났다.

국가정원 기념품점은 팝업스토어 형태로 새롭게 꾸며지고, 숏스텝과 아이스크림 등 달콤한 간식을 즐길 수 있는 '달콤 간식 가게'도 운영됐다.

꽃과 체험, 미식이 어우러진 이번 행사

는 보고, 만들고, 맛보는 '입체형 봄 축제'로 완성됐다.

순천시 관계자는 "4월은 순천만국가정원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로, 튤립이 절정을 이루는 시기에 맞춰 특별한 경험을 준비했다"며 "정원을 찾는 모든 분들이 꽃과 함께 머물고, 즐기고, 기억하는 봄날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만국가정원은 계절별 꽃과 체험 콘텐츠를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단순 관람을 넘어 체험형 정원 관광지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순천=박철서 기자 2556pk@gwangnam.co.kr

## 보성-서울예술단, 문화예술 교류 '앞장'

### '청사초롱 불 밝혀라' 공연 협약...전국 지자체 최초

보성군은 최근 서울예술단과 창작가무극 '청사초롱 불 밝혀라' 공연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수준 높은 공연 콘텐츠를 지역에 유치해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공연예술 저변을 넓히기 위해 추진됐다.

'청사초롱 불 밝혀라'는 2025년 서울예술단 창작 가무극 공모전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으로,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결혼 전문업체 '청사초롱'이 주관하는 혼례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신분 차이와 사회적 금기를 넘어 사랑받고자 하는 인간의 보편적 감정을 윤택하면서도 따뜻하게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특히 무대 양옆에 관객석을 배치해 관객이 혼례 하객으로 참여하는 형식의 연출을 적용, 무대와 관객 간 거리를 좁히고 몰입도를 높인 참여형 공연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보성군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해당 작품을 선보이게 되며, 서울예술단은 전국 순회공연에 앞선 첫 무대를 보성에서 진행하며 공연 운영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상철 보성부군수는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보성군민에게 서울예술단의 완성도 높은 공연을 선사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서울예술단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지역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상록 서울예술단 단장 겸 예술감독 직무대행은 "보성에서 이 작품의 문을 열어준 것에 깊이 감사하다"며

"기존에는 대도시나 대형 공연장을 중심으로 공연이 이뤄졌지만, 이 공연을 통해 지역 관객들에게 다가가고 더 좋은 공연을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안태형 기자 limh66@gwangnam.co.kr



보성군과 서울예술단이 최근 창작가무극 '청사초롱 불 밝혀라' 공연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보성군청

## 광양, 친환경 자원순환단지 설치사업 추진

###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절차 대응

광양시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등) 설치를 위해 광양시 친환경 자원순환단지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23년 9월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하고 입지후보지 공개 모집을 실시했으나 신청지역이 없어 광양시 전 지역이 입지후보지 대상이 되어 하므로, 주민대표는 광양시 전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을 선정했다.

이러한 사유로 2023년 11월에 대표적인 주민대표 기구인 전국이동장연합회 광양시지부에 주민대표 추천을 요청했으며, 이

후 3명을 추천받아 주민대표로 위촉했다.

이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입지타당성 용역을 통해 총 44개 후보지를 발굴했다.

이후 위원회 논의를 거쳐 후보지를 19개로 압축하고 최후후보지 1개소와 대안후보지 1개소를 선정했다.

입지선정 과정에서는 제7차 회의 등을 진행했으며, 주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주민대표를 추가 위촉하는 등 위원회 운영을 지속해 왔다. 현재 주민대표 4명이 참여하며 관련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gwangnam.co.kr

## 고흥,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시범운영

### 보고·전파·대응 일원화

고흥군은 각종 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난안전상황실 구축을 추진, 현재 24시간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재난안전상황실 구축은 재난 발생 상황을 신속·정확하게 전파하고 대응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소방, 경찰, 해양경찰과 기초자치단체가 통합 연계해 운영 중인 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기반으로 상황 전파 및 보고 체계를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군은 현재 시범운영을 통해 실제 재난 발생 상황을 가정한 보고 체계 점검과 상

황 대응 절차를 검증하고 있으며, 24시간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또한 운영 과정에서 도출되는 개선 사항을 반영해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재난안전상황실은 상황 접수부터 보고, 전파, 대응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유관부서 간 협업 기능도 강화될 예정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재난안전상황실 구축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4월 중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

## 곡성 동화정원서 '봄의 멜로디' 음악회

### 내달 2~3일 모천리 일원...김경록 등 가수 출연

곡성군은 오는 5월 2일부터 5월 3일까지 2일간 곡성읍 모천리 일원에 조성된 동화정원에서 '봄의 멜로디'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는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며 봄의 정취가 가득한 정원 속에서 음악과 체험,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동화정원은 지난해 가을 황화코스모스가 장관을 이루며 인생사진 명소로 떠오른 곳으로, SNS를 통한 자발적 홍보로 많은 관광객의 발길을 이끌었다. 올 봄에는 초록빛 밀밭을 비롯해 수레국화, 양귀비, 안개꽃 등이 어우러져 한층 더 다채로운 봄 풍경을 선사하며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감성과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5월 2일에는 섬세하고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주는 전자현악듀오와 감미로운 목소리로 사랑받는 V.O.S. 김경록이 무대에 오른다. 5월 3일에는 전자현악듀오와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선보이는 국악퓨전밴드가 출연해 색다른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공연과 함께 다양한 감성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봄의 정취를 손끝으로 느낄 수 있는 화분 만들기 체험을 비롯해 격정 이인형과 장미 아크릴 도어벨, 키보드 꾸미기 등이 진행되며 캐리커처 체험과 향긋한 향이 가득한 로즈커피 및 꽃차 시음 코너도 마련돼 다양한 연령층의 방문객이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일부 체험 프로그램은 유료로 운영되며, 사전신청 (https://naver.me/GntVkdPK)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곡성=김유빈 기자 hnnews1@gwangnam.co.kr